

제시문 가,나,다는 아름다움에 대해 공통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 아름다움에 대한 비판의 유무와 아름다움형성에 미치는 타인의 영향력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제시문(가)에서 아름다움은 인위적이지 않고 온전한 상태여야 한다고 말한다.

문인화가들은 매화가 휘어지고 꺾이었을 때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매화 판매하는 사람들이 매화를 모두 병들게 함으로써 지방의 매화가 모두 병이 들었다. '나'는 매화를 구매한 뒤 매화가 온전치 못한 것에 분노하고 비판하며 병든매화를 회복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을 온전한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다)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비판하지 않는다.

(나)에서는 명량수전의 아름다움이 의도된 것이라 본다. 명량수전의 창건주인 의상대사가 자연과의 조화를 의도하고 필요미와 비례미에 맞춘 건축설계를 통해 창건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제시문(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산한 행동을 하며 꾸민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나)와(다) 또한 아름다움의 형성에 미치는 타인의 영향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대상의 아름다움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무량수전은 자연물 즉, 저절로 만들어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창건주라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무량수전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다.

반면에(다)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이 생성될 때 타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다.

르네상스 궁중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의도할 때는 꾸밈지만 꾸민티를 내서는 안된다. 꾸민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구성되므로 타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꾸민티를 내기 이전에 꾸미는 것은 꾸밈의 주체인 궁중여성에게 달려있으므로 타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